

85 시멘트 決算書

姜 鎭 熙

〈韓國洋灰工業協會企劃課長〉

1. 序

乙丑年 한해를 보내면서 業界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새삼스럽다.

우선 시멘트業界에 식구가 하나 늘었음을 들고 싶다.

漢拏시멘트 玉溪工場이 지난 5月末 火入을 함으로써 1978年 竣工된 韓國高爐시멘트社 以後 7年만에 시멘트 會社가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洋灰協會는 포틀랜드 시멘트 제조 8個社, 슬래그 시멘트 제조 1個社 및 白시멘트 1個社로 모두 10個 會員會社를 가지게 되었다.

漢拏시멘트 玉溪工場은 1978年 4月 着工되어 建設工事が 進行되던 中 1979年 5月 重化學校 投資調整의 一環으로 工事が 中斷되었다가 1984年 3月 迂餘曲折 끝에 建設工事が 再開되어 1985年 5月末 비로소 100여만톤級 1基의 竣工을 보게 된 것이다.

이제 漢拏시멘트도 業界의 新參社로서 既存의 시멘트社와 協調關係를 維持하면서 國內需要와 輸出需要에 寄與할 수 있기를 期待해 마지 않는다.

한편 시멘트 業界가 2~3年前부터 推進하여 오던 增設 및 施設改造 事業이 完전 마무리되었다. 즉 現代시멘트의 150여만톤級의 大規模 4號 1번이 10月 竣工되었고, 東洋의 160여만톤級의 4·5號 1번이 같은 달 竣工되었으며 韓

一 및 星信의 施設改造工事も 年初 및 年中에 竣工을 보았다.

이와 같은 新·增設 및 施設改造로 시멘트 業界의 生産施設規模가 대폭 增加되어 1986年의 生産能力은 約 2,900 萬톤에 肉薄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增加되는 國內需要 및 輸出需要에 對備한 충분한 供給能力을 갖추게 되었다. 다만 급격한 施設擴大로 당분간 供給過剩 現象을 免할 길 없음이 오히려 걱정스럽다.

한편 輸送共同行爲를 계속 實施하여 시멘트 業界에 常存하는 構造的인 輸送問題를 圓滿히 解決한 點을 看過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綜合輸送體系를 통하여 輸送效率의 極大化를 期함으로써 約 2,000 萬톤에 달하는 內需物量을 無난히 處理하였으며 消費地 備蓄 強化로 地域間 需給安定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物物交換과 逆輸送 防止로 浪費的 輸送費用을 除去함으로써 産業合理化의 基礎를 다지는데 이바지한 바 크다고 하겠다.

이처럼 供給能力 擴大, 輸送共同行爲를 통한 輸送의 圓滑 등 關목할 만한 面이 있었던 한편 産業 및 商品의 特性에서 오는 構造的인 輸送問題 해결을 위한 단계적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南部洋灰基地 建設 推進과 海上 中繼基地의 建設 등이 그것이다. 특히 南部洋灰基地는 最大 需要地이자 항시 供給上의 문제지역으로 꼽히는 首都圈地域의 로의 수송 원활을 기하려는 대규모

計劃事業으로서 今年中 모두 着工되었고 一部는 竣工段階에 이르렀으며 적어도 1986年 上半期 中에는 전체 稼動이 가능할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면 輸送隘路 解決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特殊시멘트 開發의 一環으로 按着力이 강한 메스리 시멘트가 開發, 生産되었음도 特記할 만하다.

또한 88 올림픽고속도로에 이어 새로 건설되는 中部高速道路의 鋪裝이 完結 시멘트 콘크리트로 施工케 되었는데 바 業界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지난 한해 동안의 시멘트 需給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需給

1985年度의 시멘트 需給은 다소 침체한 局面을 보였다.

當初 需要의 큰 增加는 기대하지 않았어도 적어도 84年度의 4.8%보다 1.2% 포인트 높은 6%의 증가를 豫상했었다. 이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의 兩大行事로 인한 需要誘發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크게 빛나지 前年の 增加 水準에도 못미치는 4%에 그쳤다.

그렇다고 해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輸出不振으로 設備投資가 위축되고 建築活動이 活潑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시멘트 需要가 成長했다는 것은 그 幅의 多少를 떠나 多幸한 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한편 輸出은 계속 不振하여 前年對比 91.7%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今年的 供給能力이 크게 擴大된 現時點에서 볼 때 지난 한해 동안의 需給實績보다 明年의 시멘트 需給狀況이 걱정스러운 때이다.

1) 生産

85年度의 크링카 生産은 20,579천톤으로서 前年對比 100.7%로 前年과 거의 같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시멘트 生産은 前年對比 101.9%로 약간의 增加를 보였다. 이와 같이 生産活動이

前年水準과 비슷한 것은 內需와 輸出의 總需要가 2.2% 增加에 그쳐 이를 그대로 反映한 결과이다. 需要를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生産은 곧 바로 在庫負擔이 되어 企業에 資金壓迫을 주기 때문이다.

한편 稼動率을 보면 年平均 83%를 시현하여 前年の 87%보다 4%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과거 10年間의 平均 稼動率 88.2%보다 무려 5% 정도 떨어지는 실적으로서 主된 下落原因은 今年中 生産能力을 追加로 認定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分期別로 보면 1/4分期中 74.0%, 2/4分期 87.3%, 3/4分期 84.0% 및 4/4分期 85.5%로서 많은 補修가 이루어지는 1/4分期를 除外하고는 대체적으로 標準화된 稼動實績을 보였다.

한편 稼動率을 會社別로 보면 現代 및 高麗가 共히 90%를 上廻하는 높은 實績을 보였으며 東洋 및 雙龍도 90%에 거의 육박하는 實績을 보인 反面 亞細亞 및 星信은 70% 前後의 낮은 水準이다. 稼動率이 높은 會社의 경우 現代는 規模가 작고 自家消費가 많으며 高麗는 地域的으로 販賣가 容易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東洋과 雙龍은 輸出需要에 대응한 稼動率 提高로 풀이된다.

한편 5月末 火入한 漢拏는 아직 運轉狀態가 安定되어 있지 않아 稼動率을 따질 段階가 아니며 試運轉段階를 겨우 벗어난 狀態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內需

(1) 需要部門別 實績

85年度 內需는 19,246천톤으로서 前年對比 4%의 增加를 보였다. 이는 84年度의 4.8% 增加나 當初計劃 6%에 못미치는 결과이다.

전반적인 景氣沈滯 속에서 조금이라도 增加했으니 多幸으로 여겨야 하겠으나 2~3年 前부터 年間 7~8%의 內需伸張을 기대하고 이에 맞추어 供給能力을 확대하여 온 業界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의 內需增加마저도 不透明하여 더욱 그러하다.

한편 이를 部門別로 살펴보면 民需는 전년대비 104.5%로 內需 增加率을 그대로 反映하고 있으며 官需는 前年對比 101.4%로 前年 水準에 머물른 셈이다.

또한 民·官需의 構成比를 보면 民需 84.2%, 官需 15.8%로 民需가 시멘트 需要를 완전히 主導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官需比重이 82年 前까지는 20%를 上廻하는 수준이었으나 83年 이후는 15~16%線에 있다.

따라서 內需中 官需比重은 向後에도 15%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점점 줄어들 展望이다. 經濟規模의 擴大로 政府가 主導하는 投資事業 比重이 낮아지고 經濟運用의 民間主導, 官給建設 工事に 레미콘 使用擴大 등으로 이런 추세는 加速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멘트의 최대 수요부문은 建築部門으로서 建築許可實績이 시멘트 需要의 先行指標로서 중요한 意味를 지닌다.

85年度の 建築許可動向을 보면 1~9月까지 前年 水準보다 낮았으나 10月中 186.7%를 기록하여 累計對比로 102.9%를 나타냈다. 특히 8月 이후 매일 前年同月水準을 上廻하고 있는데 注目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向後 시멘트 需要가 不透明한 가운데서도 一抹의 期待를 갖게 하는 要素이기 때문이다.

또한 用途別로 볼 때 住居用이 前年對比 113.1%로 전체 建築許可實績을 주도하고 있음도 다소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다만 設備投資 低調로 工業用 部門이 전년대비 79.0%에 머물고 있어 마음에 걸린다.

(2) 季節別 實績

시멘트는 商品의 特性上 季節別 需要의 起伏이 심하다.

85年度の 月別 시멘트 需要도 그 특성을 대체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1月, 2月 및 12月이 낮은 수준이었고 4~6月 및 9~11月 期間이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0月은 月別 比重에서는 제 몫을 차지했으나 前年同月比에서는 98.5%로 負의 成長을 기록한 바 이는 9月末 있었던 秋夕의 延

長과 中旬까지의 기후의 기복현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5月の 實적이 前年同月比 99.2%에 그친 點은 84年 5月 實적이 年中 最多였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벌크시멘트 出荷比率

內需出荷中 벌크 比重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벌크化率의 提高는 시멘트 輸送 및 流通에 매우 중요한 뜻을 갖는다.

즉 輸送 效率의 增大, 保管·管理의 容易, 流通의 單純, 荷役費用과 紙袋費 및 包裝費用의 節減, 消費者에 대한 서어비스 強化 등의 長點이 있다.

또한 시멘트 業界가 構造的 問題點으로 열거하는 수송문제를 根本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捷徑이기도 하다.

다만 벌크 消費 增大를 위해서는 벌크 시멘트 및 레미콘 利用의 消費者側 選好度가 先行되어야 하겠으나 業界로서는 이의 促進을 위하여 流通中繼 施設의 擴充과 輸送手段의 確保 등에 投資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先進國의 벌크化率은 70%를 上廻하고 있으며 日本의 경우 88%에 이르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 落後된 水準이기는 하나 每年 增加一路에 있어 앞으로 4~5年 後면 先進國 水準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85年度の 벌크 出荷比率은 48.1%로서 크게 向上되었다.

이는 80年 21.3%, 81年 26.6%, 82年 32.3%, 83年 37.6%, 84年 43.4%에 이은 實적으로 괄목할 만한 기록이며 80年 以後 年平均 5.3%의 높은 伸張勢인 것이다.

한편 시멘트 業界가 추진하는 南部洋灰基地, 沿岸流通基地 등의 建設이 86年 上半期까지는 대부분 마무리될 計劃인 바 이의 正常稼動이 이루어지면 벌크 消費增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시멘트 流通中繼基地가 점차 擴大되어 가면 벌크化率의 提高뿐 아니라 流通基地 出荷率이 높아져 輸送效率의 提高, 비축기능의 강화, 하역비 절감, 소비자에 대한 서어비스 向上 등을 동시에 充足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85年度の流通基地出荷率は 53.8%로서 아직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業界의 流通基地施設投資 擴大로 꾸준히 向上되고 있어 기대되는 바 크다.

3. 輸 出

85年度の輸出은 크링카를 포함하여 出荷基準 2,912천톤으로서 엄청난 감소현상을 보였던 84年の 3,177천톤에도 못미치는 91.7%에 불과했다.

이를 최근 10年間の 輸出實績과 比較할 때 內需供給不足으로 부분적인 輸出禁止가 있었던 78~79年을 除外하면 最低水準이며 10年만에 3,000천톤을 밑돌게 되었다.

이와 같이 輸出이 減少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要因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의 輸出主力市場이던 中東産油國들의 景氣退調로 輸入需要減少를 들 수 있고 주요 輸入國들의 自給度 向上과 輸出國으로의 轉換 그리고 輸出競争國들의 國內供給過剩으로 인한 심한 競争과 東歐圈 輸出國家들의 中東 및 東南亞 進出 등으로 要約되겠다.

85年度の 輸出實績을 地域別로 살펴보면 東南亞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및 방글라데시는 각각 500천톤, 350천톤 및 340천톤으로 어느 정도 例年水準에 이르렀으나 말레이시아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 印度市場은 완전 상실했으며 인도네시아는 輸入國에서 輸出國으로 轉換하였다.

한편 中東地域의 경우 사우디 아라비아는 例年水準의 20~30%에 불과한 280천톤, 아랍에미레이트도 1/2 수준인 180천톤에 그쳤으며 바레인만이 190천톤으로 겨우 예년 수준을 지켰을 뿐이다.

이런 상황의 변화로 중동지역에의 輸出은 전체 실적의 40~50%를 占有했었으나 85年の 占有率は 23%로 下落하고 말았다.

이같은 中東市場 상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業界에서는 新市場 開拓의 一環으로 美國 및 日本市場을 노크한 바 점차 實效를 거두어 가고 있는 중이다.

85年度 시멘트 需給總括

(單位: 千噸)

		84 (A)	85 (B)	B/A × 100
供給	移 越	498	640	128.5
	生 産	20,359	20,737	101.9
	計	20,857	21,377	102.5
需 要	內 需	18,506	19,246	104.0
	民需	15,508	16,206	104.5
	官需	2,998	3,040	101.4
	輸 出	(1,470)	(1,408)	(95.8)
	計	20,213	20,750	102.7
在 庫		640	659	103.0

註: 1) ()內는 크링카 輸出.

2) 85. 12月分 推定算入.

즉 美國市場의 경우 83年 100천톤, 84年 370천톤에 이어 85년에는 400천톤을 수출하여 꾸준히 伸張하고 있으며 日本의 경우도 84年 下半期에 처음 上陸하여 80천톤의 실적을 올린 데 이어 85년에는 290천톤으로 急伸張하게 되었다.

따라서 85年度 이 두개 시장의 수출이 690천톤을 기록하여 中東地域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특히 日本市場의 경우 현지에 前進서어비스 사일로를 建設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어 앞으로 기대되는 바 크다.

한편 수출실적을 品目別 構成比面에서 보면 크링카의 경우 83年 28.7%에서 84년에 46.3%로 크게 增加하더니 85년에 다시 48.4%로 그 比重이 커져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輸出總量이 준데 반하여 싱가포르와 홍콩에 나간 크링카 수출량이 일정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장시멘트는 84年の 7.6%에서 18.0%로 增加한 反面 벌크시멘트는 84年の 46.1%에서 33.6%로 크게 떨어졌다.

한편 85年度の 輸出實績을 金額面에서 보면 96백만弗로서 84年 108백만弗의 88.9%로 떨어졌다. 輸出物量의 減少 8.3%보다 金額減少가 더 큰 것은 國際市場環境의 惡化로 輸出單價가 계속 下落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